

경북도, 디지털 영상 산업 메카로 도약

문경 버추얼(가상) 스튜디오 개소 …국내 최대 규모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경상북도는 문경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인프라인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강도성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김대식 문경부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주요 인사, 콘텐츠·미디어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문경 버추얼 스튜디오는 중소 미디어·제작사도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가 총 15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공공 제작 시설로서 국내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문경버추얼 스튜디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J자형 LED 벽(43m X 6m), 자동제어 LED 천장(12m X 12m), 이동형 LED 패

널 2대(5m X 5m) 등 첨단 장비를 함께 갖추고 있어, 영화·드라마·예능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문경새재·마성·가은 오피세트장, 안동호 해상 촬영장 등 지역 명소의 배경 데이터를 구축해 가상 조건이나 촬영 시간 관계없이 현실감 있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며, 사극 촬영의 중심지인 문경시에 있어 우리나라 역사와 고유문화를 소재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북도는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문경을 차세대 실감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첨단 기술과 후반 작업역량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혁신적 제작 기술을 접목할 뿐만 아니라 국가과제와 기업 R&D 연계 등을 통해 버추얼 스튜디오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한윤석 기자

응급똑똑 앱, 아이안심톡으로 대처해요

야간·휴일 등 의료공백 시간에도 '24시간 소아전문 의료 상담' 가능



대구광역시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 앱 '응급똑똑'과 온라인 소아전문 상담 서비스 '아이안심톡'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야간·휴일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경련, 복통 등 증상을 보일 때,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똑똑 앱'은 보호자가 입력

한 증상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실 및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실시간 진료 가능 여부 및 병상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위치 기반 안내를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환자가 적합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은 보호자가 누리집(caretok.nemc.or.kr)에 접속해

아이의 증상을 입력하면 AI 챗봇이 1차로 중증도를 판단하고, 필요 시 사진 첨부를 통한 1:1 전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언제 어디서든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아 이송될 수 있다.

또한, 경증 환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정 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지역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재영 소아전문상담센터장은 "아이안심톡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보건복지국장은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제15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수상작 발표

울산시는 제15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 '꿀벌요정 플로비' 1점을 비롯해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홍보를 위해 박람회를 상징할 대표 캐릭터와 응용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총 198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검증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9일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공공디자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2점, 특선 10점, 입

상 10점 등을 포함해 총 27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상작으로는 '꿀벌요정 플로비'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공업탐과 코스모스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해 울산의 산업과 정원문화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에게 독창성과 완성도, 상품화 가능성, 전국민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아 최고 점수를 차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2028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공식 홍보물, 기념품, 전시 등에 적극 활용해 박람회의 상표 가치를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전시된다.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총 1,500만 원의 상금(대상 80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울산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북구 화봉동에 있는 옥상정원 '구암 산들강'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제8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암 산들강'은 전체 면적 833㎡ 가운데 706㎡(75.5%)가 녹지로 꾸며진 도심형 옥상정원이다.

이호근 기자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했다

부산시-서부산힐링플래닛(주) (대표사 태영건설) 실시협약 체결해



을 가진다.

시설임대료는 연평균 약 81억 3천200만 원(경상가계 기준)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9억 5천700만 원(2023.1.1. 기준)을 지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박 시장 취임 후 각종 난제를 돌파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건설공사비 지수 급등으로 공공부문 공사가 잇따라 유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가 적극 노력한 결과, 기재부로부터 사업비 한도액 증액을 끌어내며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실시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

울주군,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 교통카드 발급, 월 16회 환급 지원

울주군이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울주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시철도를 운용 중인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울주군은 서울시의 1.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광범위

한 생활권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해 지하철 무료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도농복합형 교통복지 모델로 마련됐다.

울주군은 올해 12월까지 총 8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과 13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다. 단,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관내 모든 시내버스로, 일반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 등이 대상이다.

경주·양산·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의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내에서 '선 사용 후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탑승하면 분기별 사용 금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한다. 첫 환급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오는 12월 20일 지급하며, 이후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에 차례로 지급된다.

전용 교통카드 발급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다. 울주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호근 기자

경남 올 추석 벌쏘임 위험 최고조…벌초객 안전 비상

어두운색 옷·향수 사용 삼가야…알레르기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서벌에 쏘이는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계됐으며, 이 가운데 1,325건이 8월과 9월에 발생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벌의 공격 성향을 실험한 결과, 말발은 검은색을 가장 강하게 인식했으며 이어 갈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반응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이동하면 공격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빠르게 20미터 이상 벗어나면 대부분 벌이 발집으로 복귀하는 경향도 관찰됐다. 소방본부는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옷차림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룡 기자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지도선 '사천바다호' 취항했다

사천의 바다에서 어업 질서 유지·불법어업 단속·해상 안전관리 등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파수꾼'이 등장했다.

사천시는 삼천포신항 일원(사천시 향촌동)에서 노후화된 기존 어업지도선을 대체해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지도선 '사천바다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항식에는 박동식 사천 시장을 비롯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천바다호'의 첫 출항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범 항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천바다호'는 지난 30여 년간 사천시 해역을 누벼온 노후 어업지도선 '경남233호'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최신행 선박이다.

32톤급 알루미늄 재질의 최신행 어업지도선으로, 전장 20.87m, 너비 4.60m, 깊이 2.20m 규모이며, 항속거리는 660km다. 탑승가능한 인원은 승무원 포함 12명이다.

총 38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23년 11월 설계를 시작으로 32개월간의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 선박은 1,218마력의 고성능 엔진 2기와 위터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등 친환경 설비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어업 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 해상 안전관리 등 다양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바다호는

단순한 어업지도선을 넘어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 유지와 불법어업 단속, 해상 안전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바다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총 30여척의 민간 선박을 적조 우심 해역에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인근을 중심으로 황토 살포 및 교반작업 등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최성룡 기자